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서 수 균[†]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가 개발되었다(Chambers, 1999). 본 연구는 이 척도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ambers가 제안한 3요인(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정당화, 반추) 모델이 양호하게 지지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의 두 하위척도인 정당화와 반추는 역기능적인 분노행동 및 분노사고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분노통제 및 합리적 신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정당화, 반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수균 /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TEL : 016-440-1284 / FAX : 02-2123-3111 / E-mail : sgseo12@hanmail.net

분노는 흔히 생리적, 신체적, 인지적 반응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Deffenbacher & McKay, 2000; Izard, 1977). 특히 인지적 반응은 분노 경험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러 분노 이론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Beck, 2000; Berkowitz, 1990; Deffenbacher & McKay, 2000; Lazarus, 1991). 분노는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의미부여에 의해 촉발된다(Averill, 1983; Beck, 2000; Ellis & Tafrate, 1997; Kassonov & Sukhodolsky, 1995; Lazarus, 1991). 타인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생각될 때 분노가 흔히 발생하며, 타인 책망적인 귀인이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인지 과정으로 확인되었다(Averill, 1982, 1983). Graham, Hudley와 Williams(1992)는 분노가 ‘반드시 ... 해야만 한다’는 판단과 연합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Ellis(1962, 1994)와 Horney(1950)는 분노를 ‘당위적 요구의 폭군(tyranny of the shoulds)’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역기능적인 분노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소’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Ellis & Tafrate, 1997; Lazarus, 1991). 분노를 경험하는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소’라는 주장을 상대나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노표현 양상은 대개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Worden, 1985). 이 중에서 특히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다양한 심리장애나 신체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으로 보고되었다(김교현,

전경구, 1997; Bridewell & Chang, 1996;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Moore & Paolillo, 1984;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이와 같은 세 유형의 분노표현 구분은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였다(Stoney & Engbretson, 1994; Thomas, 1993; Thomas & Williams, 1991). Deffenbacher, Oetting, Lynch와 Morris(1996)는 분노표현의 한 방식으로 상호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열거한 바 있다.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은 상대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분노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는 표현 방식이다(Thomas, 1995). Davidson, Stuhrt 및 Chambers(1998)는 분노에 대해 논의(anger discussion)하는 형식의 분노 표현 방식을 언어성 분노행동(verbal anger behavior)이라 일컫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언어성 분노행동이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으로 구분됨을 보고한 바 있다.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분노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은 목표지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분노표현 방식이다. 이에 비해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자기 정당화와 변명, 타인 책망적 귀인을 함으로써, 분노를 되씹고 원망감이 지속되며 논의전보다 분노와 상대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게 한다(Tesser, 1978).

Chambers(1999)는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Anger Behavior-Verbal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지시문을 사용한다. 하나는 “내가 나의 분노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것은 _____ 하기 위해서 이

다.”로 이는 언어성 분노행동의 동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은 문제해결과 갈등해소가,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자기정당화와 타인 책망적 귀인이 주된 동기가 된다. 다른 지시문은 “내가 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뒤에 나는 _____ 된다.”로 이는 언어성 분노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갈등이나 분노를 감소시키지만,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갈등이나 분노를 지속시키거나 증가시킬 것이다.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Constructive Anger behavior-verbal Scale)와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Destructive Anger behavior-verbal Scale)로 나뉘며, 파괴적인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다시 정당화(Justification Scale)와 반추 하위척도(Rumination Scale)로 나뉜다.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반영한다. 정당화 하위 척도는 타인을 책망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방어하려는 행동을 반영한다. 반추 하위척도는 분노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되씹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12문항, 정당화 하위척도는 6문항, 반추 하위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형의 4점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Chamber(1999)의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내적 합치도는 .90, .84, .77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hamber(1999)가 개발한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어권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과 논의를 거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를 번안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판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와 분노감 및 분노표현 양상을 평가하는 척도, 역기능적 신념 및 분노사고를 평가하는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이전 연구들(서수균, 권석만, 2005b; 서수균, 권석만, 2005c)과의 차이점은 분노유발 과정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확인된 비합리적 신념 및 분노사고와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 및 분노사고가 건설적 및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개발은 분노표출과 억제에 제한되어 있던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를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방식에까지 확장시켜주며, 특히 분노유발 상황에서의 적응적인 혹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대학생 409명(남:149명, 평균연령:22세; 여:260명, 평균연령:21세)을 대상으로 공격성 질문지,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¹⁾로 구성된 질

문지 묶음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으로 구성된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 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 (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1, 언어적 공격행동 .83, 분노감 .60, 적대감 .75.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4점 척도 (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내적합치도는 특성분노는 .82였으며(전검구 등, 1997), 분

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성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R-GABS)

R-GABS는 DiGiuseppe, Leaf, Exner와 Robin (1988)이 개발한 GABS를 서수균(2004)이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다섯 개의 하위 비합리적 신념 척도(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와 한 개의 합리적 신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동의한다, 5: 강하게 동의한다)상에서 평정되었다.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81에서 .87사이였으며 합리적 신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7이었다(서수균, 2004).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Prim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차적 분노사고 유발에 기여한다.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라는 2 요인 구조를 보였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형의 5

1) 별첨에 질문지를 첨부하였음.

점 척도(1: 전혀 일치하지 않음, 2: 약간 일치함, 3: 어느 정도 일치함, 4: 상당히 일치함, 5: 거의 정확히 일치함)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a).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흔히 대처 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인비난/보복, 무력감,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96, .78, .75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a).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Chambers(1999)가 제안한 3요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hi^2=502.06$ ($df=227$, $N=419$)($p<.0001$), $NFI=.960$, $RFI=.952$, $TLI=.973$, $CFI=.978$,

$RMSEA=.054$. χ^2 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모델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일반적으로 권한다(이순목, 1990). 분석 결과에 따르면,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3요인 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NFI, RFI, TLI, CFI 모두에서 .90 이상의 값을 보여 양호한 적합도가 시사되었으며, RMSEA에서도 .05 수준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hambers(1999)가 제안한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3요인 모델이 한국판 척도에서도 타당하게 지지됨을 시사한다.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12문항)의 Cronbach α 값은 .87이었고,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정당화(6문항)와 반추 하위척도(5문항)의 α 값은 각각 .84와 .69였다. 정당화와 반추 하위척도를 합친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α 값은 .84였다. 이러한 내적 합치도 결과는 Chambers(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추 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내적합치도를 보이지만 이는 5개 밖에 안 되는 적은 문항수를 고려한다면, 연구를 수행하기에 허용적인 수준이다(Nunnally, 1978).

하위척도 간의 상관을 보면,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과 정당화 하위척도는 .07,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과 반추 하위척도는 .09였으며, 정당화와 반추 하위척도는 .48($p<.001$)이었다.

표 1에는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하위척도 별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성별에 따라 제시

표 1.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전체 (n=409)	평균(표준편차)	
		남자 (n=149)	여자 (n=260)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32.13(5.95)	32.97(5.74)	31.66(6.02)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정당화	15.49(3.98)	16.21(3.86)	15.08(4.00)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반추	7.43(2.20)	7.73(2.30)	7.26(2.12)

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노감 및 분노표현 방식을 평가하는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그 다음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인 분노사고와 신념을 평가하는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의 정당화와 반추 척도는 STAXI-K의 특성분노 및 AQ-K의 분노감과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특성분노 및 분노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당화와 반추 척도는 STAXI-K의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AQ-K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적 공격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표 2.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와 STAXI-K 및 AQ-K의 상관

척 도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정당화	반추
STAXI-K			
특성분노	.02	.37***	.35***
분노표출	-.01	.31***	.25***
분노억제	.03	.35***	.35***
분노통제	.27***	-.15**	-.09
AQ-K			
신체적 공격성	-.24***	.26***	.26***
언어적 공격성	.14**	.26***	.21***
분노감	.03	.34***	.35***
적대감	.11*	.47***	.50***
총점	.07	.42***	.43***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p < .01$, *** $p < .001$

표 3을 보면 정당화와 반추 척도가 R-GABS의 비합리적 신념 척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합리적 신념 척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비합리적 신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합리적 신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기능적인 이차적 분노사고인 타인비난/보복, 무력감 척도가 정당화나 반추 척도와는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유의한 상관을 보이더라도 경등도의 상관에 그쳤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분노통제/

표 3.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와 분노사고 및 신념 척도와 상관

척 도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정당화	반추적 사고
R-GABS			
성취에 대한 집착	.07	.21***	.25***
자기비하	.01	.20***	.20***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07	.21***	.32***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24***	.38***	.30***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01	.29***	.30***
비합리적 신념 총점	.02	.34***	.36***
합리적 신념	.26***	-.14**	-.21***
일차적 분노사고	.15**	.42***	.35***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12*	.45***	.39***
무력감	.09	.31***	.30***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43***	.18***	.22***

** $p < .01$ (일방검증), *** $p < .001$ (일방검증)

R-GABS: 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건설적 대처는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와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당화 및 반추 척도와는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보다 낮은 경도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본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역기능적인 분노사고를 많이 할수록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을 많이 보이며, 반면에 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분노사고를 많이 할수록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을 많이 보임을 시사해 준다.

논의

분노표현 행동의 한 차원으로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행동의 임상적 중요성이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 이런 관심에 따라 의사소통적 분노표현 행동을 평가하고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가 Chambers(1999)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Chambers(1999)가 제안한 3요인(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정당화, 반추)

모델이 한국판 척도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내적합치도는 하위척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에서도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의 정당화와 반추 하위척도가 분노표출/억제,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또한 정당화와 반추 척도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분노사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합리적 신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분노통제나 합리적 신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분노표출/억제, 비합리적 신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신체적 공격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타인과 분노경험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자신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책망하려 하고 분노경험을 반추하는 사람은 분노감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역기능적 분노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을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분노유발 과정에 관여하는 두 인지적 요인인 비합리적 신념과 역기능적인 분노사고가 분노에 대한 의사소통적인 표현 방식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에 대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가 자기보고형 검사

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표현 행동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보고할 수 있어, 자기보고형 검사 결과를 타인이 평정한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문항들이 분노경험에 대해서 타인과 논의하려는 동기나 의도, 그 결과를 평가하지 실제로 개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건설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셋째, 분노 경험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화가 난 대상과 직접 얘기할 때와 분노 경험과 관련이 없는 제 3자와 얘기할 때의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는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이런 구분이 없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가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행동이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79-95.
- 서수균(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 서수균, 권석만 (2005a). 분노사고척도의 개발

- 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서수균, 권석만 (2005b).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 서수균, 권석만 (2005c). 분노조절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495-510.
- 이순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22.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1145-1160.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erkowitz, L. (1990). On the in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Bridewell, W. B., & Chang, E. C. (1996). Distinguishing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Relations to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4), 587-590.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 163-170.
- Chambers, L. (1999). *The relation among self-reported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anger verbal behavior and resting blood pressure*.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Dalhousie University.
- Davison, K., Stuhr, J., & Chambers, L. (1998). Constructive anger behavior as a stress buffer. In K. D. Craig & K. S. Dodson (Eds.), *Stress,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Thousand Oaks: Sage Press.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Lynch, R. S., & Morris, C. D. (1996). The expression of anger and its consequenc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4(7), 575-590.
-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 New York: Plenum Press.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In H. Kassirer(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1-26). Washington, DC: Tatlor & Francis.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 T. W., & Paolillo, J. P. (1984). Depression: Influence of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hostility and length of treatment. *Psychological Report*, 54, 875-881.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 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Stoney, C. M. & Engbretson, T. O. (1994). Anger and hostility: Potential mediators of the gender difference in coronary heart disease. In A. W. Siegman & T.W. Smith(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pp. 215-237). Hilldale, NJ: Lawrence Erlbaum.
- Tesser, A. (1978).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vol2, pp. 229-338).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as, S. P. (1993). *Women and Anger*. New York: Springer.
- Thomas, S. P. (1995). Women's Anger: Causes, manifestations and correlates. In, *Stress and Emotion*(pp. 645-703). Bristol, PA: Taylor and Francis.
- Thomas, S. P., & Williams, R. B. (1991). Perceived stress, trait anger, modes of anger expression and health status of college men and women. *Nursing Research*, 40, 303-307.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n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원고접수일 : 2006. 9. 26.

게재결정일 : 2006. 11. 9.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nger Behavior-Verbal Scale

Su-Gyun Seo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Anger Behavior-Verbal Scale which assesses communicative anger express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3 factor(Constructive Anger behavior-verbal, Justification, Rumination) model of Chambers(1999) was supported satisfactorily.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Justification and Rumination which are two subscales of Destructive Anger Behavior-Verbal Scale were positively related to dysfunctional anger behavior and anger thought, and Constructive Anger Behavior-Verbal was positively related to anger control and rational belief. These results suggest satisfactor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nger Behavior-Verbal Scale.

Keywords : Anger Behavior-Verbal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ustification, rumination

별첨.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AB-VS)²⁾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아래에는 **화가 났을 때 타인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나, 혹은 얘기를 나눈 뒤에 갖는 경험**에 대한 기술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종종 그렇게 느끼거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고 해당되는 숫자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옳거나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한 문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체로** 어떻게 느끼거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분노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것은 _____ 하기 위해서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2	3	4
2	건설적인 해결에 이르는데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1	2	3	4
3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	2	3	4
4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으로	1	2	3	4
5	사람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1	2	3	4
6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능한 역할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	2	3	4
7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	2	3	4
8	앞으로 닥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	2	3	4
9	다음에는 그 상황에서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	2	3	4
10	양쪽이 모두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	2	3	4
11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1	2	3	4
12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1	2	3	4
13	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	2	3	4
14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의 내 입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	2	3	4
	내가 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뒤에 나는 _____.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5	나는 날 화나게 했던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1	2	3	4
16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한다.	1	2	3	4
17	나는 원한을 품는다.	1	2	3	4
18	나는 훨씬 더 불안해 진다.	1	2	3	4
19	내가 분노를 느꼈던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	2	3	4
20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1	2	3	4
21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1	2	3	4
22	내가 해결책에 좀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된다.	1	2	3	4
23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빠 보이지는 않게 된다.	1	2	3	4

2)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 1, 2, 3, 4, 6, 8, 9, 10, 19, 20, 22, 23

정당화: 5, 7, 11, 12, 13, 14

반추: 15, 16, 17, 18, 21